지역 소식통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부안군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총 94억원을 투입해 전년대비 66명 늘어난 2659명을 모집해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 노노케어, 경로당방역관리원 등 26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은 3가지 유형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2405명)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한 시장형(106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148명) 등이다.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참여자 2511명은 12월 1~11일 우선 모집하며 사회서비스형 148명은 내년 1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한 13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하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식생활교육 진행

고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생활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2020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지역 내 식생활 관련 단체지원을 통해 미식도시 고창의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열고 있다.

교육은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군민대상 고창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세대별 바른 식생활 교육과 건강한 먹거리 만들기 실습이다.

또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바른 먹거리 미각교육'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작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먹거리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게 되고, 바른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키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물장어 생산원가 보장을"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집회 갖고 고창수협 규탄

3개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경매사 공동관리 강조

민물장어의 위판가격이 최근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생존과 존폐위기에 몰린 양식어가들이 생산원가·최저가격 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참에 위판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중상(중간상인=중매인)들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값싼 '시라시'(실뱀장어·장어치어)가 과대 입식되면서, 위판가격은 계속 하한가를 쳤지만 시중에선 6~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양식어가들은 이는 '중상들의 횡포' 때문이라는 단언했다. 도매단가는 유지하고 생산단가는 후려치면서 중상(중간상인=중매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민물장어는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고 위판제가 도입됐다. 위판수협은 민물장어양식수협(양만수협)·고창군 수협·영광군 수협으로 결정됐으며, 전체 거래량 중 양만수협 50%, 고창군 수협 35%, 영광군 수협 15%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위판제가 시작되면서 힘센 중상들이 각 위판수협의 중매인으로 등록했으며, 현재까지 장어시장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판제의 당사자는 생산자(양식어가)-수협(경매사)-중매인(중상)이다. 양식어민들은 수협경매사가 위판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지만, 경매사가 중매인과 함께 양식장을 찾아가 현장경매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큰 돈을 가진 중매인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한다.

이에 양식어가들은 수협이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생산원가·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보다 힘써주기를 원하며, 그 첫 걸음으로 '경매사 공동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수협들이 경매사를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각 수협들의 상황에 따라 생산원가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지만, 경매사를 공동관리하게 되면 생산원가 보장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는 '경매사 공동관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창군 수협을 규탄하며, 최근 고창군 수협 앞에서 다수 고창 양식어가를 포함한 100여명의 생산자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가졌다.

그 일환으로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회장 홍길수)는 '경매사 공동관리'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창군 수협을 규탄하며, 최근 고창군 수협 앞에서 다수 고창 양식어가를 포함한 100여명의 생산자들과 함께 항의집회를 가졌다.

홍길수 회장은 "생산원가가 무너지고, 양식어가들은 당장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도, 고창수협을 비롯한 3개 수협은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다"면서, "3개 수협 위판체계부터 일원화시키고, 샘플경매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첫 번째인 경매사 공동관리가 진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물장어유통위원회 오교만 위원장과 고창풍천장어생산자협회(풍천회) 장한균 회장 또한 "양식어가의 생산원가·최저가격 보장을 위해, 위판제 시스템을 개선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무엇보다 수협이 동참하고 수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고창군 수협(조합장 김충)은 담합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창군수협은 "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답변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위법하지 않으면 '3개 수협 경매사 통합운영'에 찬성하겠다고 했다"면서, "11월 13일에야 업무질의를 하고, 답변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고창군수협에서 궐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고창군수협의 입장에서는 난처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와 양식어민들은 "해수부의 답변에 일말이라도 담합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그것을 확대해석해 '경매사 공동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3개 수협이 위판가격을 담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며, 경매사 공동관리제를 통해 생산원가 보장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칠보산 국립치유의 숲' 유치전

유진섭 시장, 산림청장 면담

정읍시는 칠보산 일대 정읍허브원과 노인복지관, 시립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 등을 연계하는 정읍 치유&요양 권역 조성을 위한 칠보산 국립치유의 숲 사업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27일 산림청을 방문해 박종호 산림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유 시장은 칠보산 국립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2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유 시장은 "향기와 경관 등을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치유의 숲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청정한 자연환경의 강점을 가진 만큼 안전 관광과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강조했다.

시는 북면 복흥리 국유림 일대 약 73ha 규모의 '음악과 예술이 있는 산림치유의 숲'을 개발 컨셉으로 하는 칠보산 국립치유의 숲을 구상 중이다.

숲의 경관과 향기, 소리, 음이온 등 다양한 산림치유 자원을 통해 신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향기 탐방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확산과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 공직사회 '적극 행정' 확산 총력

정읍시가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확산과 복지부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적극 행정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 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적극 행정의 정책과 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적극 행정 코너를 신설해, 개념 정리와 홍보자료 등을 게시했다.

또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거나 갈등을 해결한 우수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DB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계해 다방면의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 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또, 적극 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해 총괄하고 분야별 담당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서울시 '상생발전' 협약

귀농귀촌 사업 · 축제 활성화 · 우수 혁신정책 상호교류 등

부안군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27일 도농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양 지자체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귀농귀촌 사업 협력, 문화·공연 프로그램 교류 등 축제 활성화, 청소년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수 혁신정책 상호교류, 공공급식 지원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부안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통해 지방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안군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안의 역사·문화를 서울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부안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가 서울시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기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민의 부안군 방문과 우리군 농산물 판매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과 상생의 길로 접어 들었다"고 이번 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익현 군수는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부안의 먹거리가 서울시민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찾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